

**탄소강의 미세조직 및 강도에 관한 비파괴평가**  
 (Nondestructive assessment for microstructures and strength in plain carbon steel)

변재원, 김준수\*, 김정석\*\*, 표승우\*\*, 권숙인\*\*, 박은수\*\*\*  
 고려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, \*기아자동차, \*\*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공학부  
 \*\*\*서울산업대학교 비파괴평가기술연구소

**1. 서론**

현재 철도선로로 사용되는 공석강은 고강도, 내마모성이 요구되며, 이러한 기계적 성질을 지배하는 미세조직 인자로는 펄라이트 층상간격으로 보고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공석강을 향한 변태열처리와 연속냉각열처리를 실시하여 다양한 미세조직을 갖는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펄라이트 미세조직(층상간격)과 파단강도 그리고 초음파 감쇠계수, 보자력 등을 측정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.

**2. 실험방법**

본 연구에서 열처리공정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, 항온변태온도, 냉각속도에 따라 펄라이트 미세조직 인자인 노들(nodule), 콜로니(colony), 층상간격이 모두 변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으며, 열처리 조건의 편의상 시험편의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별로 항온변태온도에 따라 공냉 및 노냉을 하였다. 각 열처리별 펄라이트 층상간격은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층상간격의 정량화는 Underwood법을 이용하였다. 또한 상온인장시험을 실시하여 파괴 응력값을 측정하였다. 초음파계측으로는 수침법을 이용하였다. 초음파 파라미터인 감쇠계수와 속도는 Pulse-echo방식과 스펙트럼분석법을 이용하였다.

**3. 실험결과**

항온변태온도가 높아질수록,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펄라이트 노들의 크기가 236~1200 $\mu\text{m}$ 까지 증가하며, 펄라이트 층상간격 역시 0.102~0.213 $\mu\text{m}$ 까지 증가하였다.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콜로니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.

펄라이트 층상간격과 초음파 감쇠계수 사이에는 양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층상간격이 좁을수록 보자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

**4. 결론**

1. 공석강의 파단강도는 펄라이트 층상간격의 1승에 반비례하며 양호한 선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.
2. 펄라이트 층상간격에 대하여 초음파 비파괴평가 결과 초음파 속도보다는 감쇠계수가 민감한 파라미터임을 확인하였고, 고주파수 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.
3. 일정한 주파수(20MHz)에서 파괴응력과 초음파 감쇠계수간에 다음과 같은 직선의 상관관계를 얻었다.  $\sigma_{FS}(\text{MPa}) = 85.86 + 390.97 \cdot (\alpha^{-1} \cdot 100)$  ( $R = 0.93$ )
4. 보자력 및 잔류자화는 펄라이트 층상간격과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.

포스터발표